나라를 구한 우정

이내원
(이순신 교육 운동가)
2017 년 10 월

친구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즐겁고 따뜻해 집니다. 생각이 비슷하여 마음이 통하며 서로 위해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도 같이 하는 일에 따라 여러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데 어우러져 짓궂은 장난을 함께 즐기는 개구장이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같이 다니며 공부를 함께 하는 공부 친구도 있습니다. 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오락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힘을 모아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해 낸 친구 사이가 있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큰 우정이며 가장 귀한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말이 선듯 믿기 어렵지만 그렇게 큰 일을 해 낸 친구 사이의 우정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1545 년 음력 3 월 8 일(양력 4 월 28 일) 한성부 건천동, 오늘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1 가에서 태어 나셨습니다. 두 분 손윗 형들을 따라 서당에 다니며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동네 앞으로 장마 때만 물이 흐르고 보통 때는 물이 말라 붙어 모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마른내'라는 이름이 붙은 놀기 좋은 개울이 있어 동무들과 병정놀이에 여념이 없던 열살 무렵, 경상도 안동 하회 마을에 살던 유성룡이라는 어린이가 이사를 와서 서로 사귀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성룡은 이순신보다 나이가 세 살 위여서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이 벼슬을 하지 않은 처지였기때문에 꼭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 이순신 장군이 열살 남짓 되었을 때 충청도 아산 외가가 있는 배암골(현재 현충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 가게 되어 다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서로 사귄 기간은 불과 2-3 년 밖에 않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름있는 집안의 자손으로 공부하는 총기가 뛰어나 그 당시 조선의 최고 학자인 퇴계 이황을 스승으로 공부하였고 특히 좋은 사람을 알아 내는 눈썰미가 천재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오늘날의 부총리 격인 좌의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던 유성룡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훌륭한 장수가 될만한 인물을 추천하라는 선조 임금의 명령에 지체없이 이순신과 권율 두 사람을 추천하였습니다.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보니 바로 이 두사람이 짝을 이루어 나라를 구해냈던 것입니다.

한산대첩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오늘날의 해군 총 사령관에 해당하는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남해 바다를 지키고,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장군은 육해군 연합사령관인 도원수가 되어 육지 방어를 담당하여 끝내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유성룡과 불과 이삼년 사귄 동생뻘 어릴적 친구 이순신을 유심히 보아 두었다가 30 여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순신을 나라를 지켜낼 장수감으로 주저없이 추천하였고, 이렇게 자기를 굳게 믿어 준 유성룡의 마음에 대하여 이순신은 목숨을 버려 보답하며 끝내 나라를 구해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큰 친구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과 이억기

전라우수사 이억기는 1561 년에 태어 났으니 이순신 장군보다는 열여섯살 아래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집안이 되는 종친인데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무과시험(군인 장교를 뽑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이순신이 32 살에 무과에 합격하고 첫 근무지 함경도 동구비보의 말단 장교 권관으로 취임했을 때 이억기는 이미 같은 함경도의 경흥부사로 별을 단 장군급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나이로는 16 살 아래이지만 군대 경력으로는 대선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1592 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있을 때 이억기도 같은 높이의 전라우수사였습니다. 이순신이 유성룡의 지원으로 고속 승진했다는 뜻이 됩니다. 원균 장군처럼 시샘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불공정하다고 투정하고 심술을 부릴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억기는 성품이 담백하고 소탈하여 이순신과 함께 연합함대를 이루어 일본군과 싸워 번번히 이기게 되자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술과 인품에 감탄하여 계급은 같으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적극 존중하고 협조하였습니다.

자기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을 솔직히 인정하고 적극 지지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그뿐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원균과 서인세력의 시기와 모함으로 삼도수군 통제사직에서 파면당하고 서울로 잡혀가 옥에 갇혔을 때 이억기도 서울로 달려가 이순신의 억울함을 여러 곳에 호소하며 구명 운동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1597 년 7 월 16 일, 새로 통제사가 된 원균이 지휘한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하다시피 패전할 때 이억기는 일본놈 칼에 죽지는 않겠다는 의기로 바다로 뛰어 내려 죽음 맞았습니다. 그 정신은 참으로 순결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1598 년 11 월 16 일(양력 12 월 19 일)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도망치는 왜군들을 맹렬히 추격하던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 전사하시어 3 년 뒤인 1601 년에 장군을 기리는 사당 충민사가 여수 마래산에 세워졌습니다. 그 뒤 이억기의 영정도 그 곳에 함께 모셔졌으니 두 분은 죽어서도 함께하는 영원한 의리와 믿음의 친구 사이가 된 것입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중 영의정에 올라 조선의 어지러운 살림을 도맡으며 특히 원군으로 참전한 명나라(중국)와의 까다로운 외교관계를 원만히 해결한 뛰어난 재상으로 이순신과 권율을 내세워 나라를 구해 냈으니 임진왜란의 특등공신이라고 할만 합니다. 그러나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기 한달 전에 서인들의 모함으로 파면 당했지만 이순신보다 9 년을 더 살았는데 어느 해인가 충민사에 들려 친구 이순신을 그리며 <이 통제를 슬퍼 함>이라는 한 서린 시 한수를 남겼습니다.

한산도 고금도
한 바다에 두어 점 푸르렀구나

그 날 백번 남아 싸운 이 장군
외 손으로 하늘을 떠 받들었네

고래들을 다 무찔러 피바다 되고
물귀신 소굴을 불로 태웠네

공로 높아 참소 모함 못 면했던가
새깃같은 목숨이라 무얼 아끼랴

어진이 가신 뒤에 모두 울던 일
슬프다 충민사 두어 간 사당

비바람 해마다....
갯 가에 사는 이들 흐느껴 우네

<뜻 풀이>

- 고래들: 잔인한 일본 해군들
- 물귀신 소굴: 일본 수군이 진치고 있는 포구

해안가에 사는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애석하게 일찍 돌아가신 충무공이 그리워 운다는 뜻